대전주보

2021년 사목지표
신앙과 삶이 하나되어 모두 한 형제로 걸어가는 공동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2020.11.29~2021.11.27

발행 유흥식(제2628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전화** 044 · 270 · 3000 **팩스** 044 · 270 · 3043
주소 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논산대교동성당 상월공소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산로 331-6 (상월면 석종리 266-1)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2021년 5월 16일(나해)

제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에페 1,17-2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르 16,15-20ㄴ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백신 나눔 운동

계 좌
하나은행 633-910012-801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문 의
(042)635-5111 / (044)270-3002

백신의 완성은 '나눔'입니다

한끼100원나눔운동
2021년 사랑의 온도현황
22.5℃

2021년 총 모금액 225,378,119원
4.30~5.6 모금액 9,763,784원
본당 7,921,554원
단체 및 개인 1,842,230원

cpbc 대전가톨릭평화방송 FM 106.3MHz「오늘의 강론」 5월 17일(월)~23일(토) 오전 6시 50분 이주사목(대전) 전담 안성준 신부 편

말씀의 향기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강대원 즈카르야
홍보국장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셨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의무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사제로서, 홍보국장으로서 살아가는 저에게는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본당에서의 전례와 신심생활이 어려워졌을 당시, 본당신부로서 본당신자들의 영신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매일 보고 있던 동영상 어플을 이용할 방법을 찾게 되었고, 비록 함께할 수 없지만 방송을 통한 미사를 봉헌하고, 부를 수 없는 성가를 올리며 함께 찬양하며 지냈었습니다. 이 방송을 하며 본당 신자들과의 영적 유대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홍보국장이 된 지금 ‘어떻게 하면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저의 삶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선포일까? 게시물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외치는 것이 선교일까? 물론 그러한 것들도 복음선포의 한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복음선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홍보국에서는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기쁜 모습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당으로서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많이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제가 지금의 상황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의무를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구 유투브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선포의 역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다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바울이
(913)
유판식 토마스

말과 혀로는 하느님

말과 혀로는 하느님, 하느님 하면서 아침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반복한다.

아침기도 때마다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아버지께서는 죄 많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는 게으름과 무지로 아버지께서 주신 피조물을 너무 함부로 쓰고 나서 이제는 아껴 쓰고 제대로 사용하자고 반성하는 체한다.

왜? 말로만 떠들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나?

인간의 욕심은 스포츠를 통해서는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를 외치며 경쟁하고,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더 많이, 더 싸게, 더 좋게"를 외치며 풍요를 누리고 재벌그룹, 다국적 기업 등 규모의 확장을 통해 부와 권력을 더 많이 독점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 하느님이 주신 창조물을 함부로 쓰고 인류의 건강과 미래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하느님의 선물인 피조물을 원상 복원하겠다고 맹세하고 실천해야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느님의 선물을 잘 복원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해야겠다.

하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저 자신부터 악마들의 도구(일회용품, 유독성 화학제품 등)를 배척하고, 일상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천사들의 도구(친환경제품, 유기농제품 등)를 애용하고 이웃과도 즐겁게 나누며 진정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김희철 스테파노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3. 교회 쇄신의 시작 : 공의회의 교회 이해 ③ – 왜 하느님의 백성인가?(하)

(지난 회에서 이어집니다)

셋째,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서로 포괄한다.** 하느님은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교회헌장 9항)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들의 무리를 불러 모으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과 개인의 구원을 이룩하는 이 일치의 볼 수 있는 성사가 되게"(교회헌장 9항) 하셨다. 사실 '하느님의 백성'이란 말 자체에, 하느님과 백성(인간)의 관계, 그리고 '백성'이라는 복수 개념에 이미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함께 들어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공의회 스스로 그 중심을 그리스도 안의 모임에 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메시아 백성'**,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들이 되게 하신 **대사제 그리스도의 새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에 대하여 말한다(교회헌장 9.10.12항). 이렇게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그리스도와의 긴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와 백성들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나타낸다(이는 이후에 다룰 하느님 백성의 삼중직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넷째, **'하느님의 백성' 개념은 교회가 종전의 '교의의 교회'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사목의 교회'로 나아가야 함을 인식하게 한다.** 공의회는 사목을 성직자가 평신도를 돌보는 교회 안의 일로만 여기던 종전의 사고를 벗어나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온 인류에게 봉사하는 차원으로 폭넓게 이해하도록 그 지평을 열어준다. 곧 이 공의회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목의 개념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봉사'이며 '모든 인간과의 연대'이고, 사목의 주체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며, 사목의 대상 역시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교회 안 사람들과 교회 밖 사람들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 인류이다.

이같이 하느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특징적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공의회 이전까지 행해진 교회의 자기중심적 이해에 대하여 무언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곧 '완전한 사회'(지난 회 참조)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게 된 것이다. 교회는 이제 (교회)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으로부터 자신을 이해한다. 곧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인간 서로와의 관계라는 이중의 관계에 봉사하며, 이 봉사 안에서 교회의 가장 진정한 정체성인 복음화를 실현해 나간다. 공의회는 결국 **교회를 하느님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표지이자 도구로 이해하며, 이것을 기초로 교회의 새로운 자아개념,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렇듯 '하느님의 백성'은 이 공의회 교회론의 기초이자 중심 개념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공식처럼 머릿속에 외워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행위로써 드러내는 것에 있다. 내가 변화하지 않고, 변화된 교회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 그분 백성,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서명옥 로사 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교구내공소

논산대교동성당 상월공소

상월(돌분이) 공소는 병인박해때 전라도에서 피신해 온 김광일 요한에 의해 전교되었고, 뮈텔 주교가 지방 관리들을 만나면서 신자들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곳은 기낭 신부의 사목 담당 지역으로 1897년에 58명의 신자가 있었다. 옛 공소건물은 1949년에 착공하여 6.25한국전쟁을 거쳐 1954년 22평 규모로 완공되었다. 건축에는 쌀 150가마를 모금하였고 목수는 이승근 씨가 담당하였다. 옛 건물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1988년에 철거되고, 이후 공소예절은 가정집에서 실시하다가 2002년 경량철골조 공소를 신축하게 되었다. 현재는 15명 정도의 교우가 정기적인 공소 미사에 참례하고 있다.

사람꽃말

식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산책에 나섰습니다. 한가로이 길을 걷다가 이름 모를 예쁜 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기 아쉬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사진과 함께 그 꽃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한가득 올라온 것입니다.

요청한 것도 아니고, 뭘 잘못 누른 것도 아닌데, 휴대폰이 스스로 알아서 '스마트'하게 궁금한 모든 정보를 이렇게 신속하게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인데, 마치 식물도감을 제 눈앞에 펼쳐 놓은 듯 꽃의 학명, 원산지, 개화 시기, 어떤 계, 문, 강, 목에 속하는지도 알려주다니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수많은 정보 중에 유독 그 꽃의 '꽃말'이 기억에 가장 오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레트'라는 그 꽃의 꽃말은 '진실한 사랑' '사랑을 점치다.' 등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꽃 한 송이에 그런 멋진 말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꽃말로 그 꽃이 더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그 꽃의 향기가 더욱 짙어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의 광대한 꽃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꽃밭에 사람이란 꽃을 정성스레 심으셨습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신 겁니다.

사람꽃의 이름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그 꽃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꽃말을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던데, 한 단어로 요약될 나의 꽃말은 무엇이 될까요? 내 삶을 가장 잘 함축하고 내 삶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한마디 꽃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왕이면 그 사람꽃말이 따뜻하고, 오래 기억되고, 향기롭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 모습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 건양대교수

아뉴스데이

글·그림 이순구(베네딕도)

질주를 하다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혼자 달리게 되면

외롭습니다.

알립니다

전담사목

성모의 밤
- 때 · 곳 : 5.20(목) 19:30, 새얼센터
- 강사 : 박성준 신부(성령쇄신봉사회 전담)
- 주제 : 성령강림 / 선착순 : 60명
- 내용 : 성체강복, 말씀묵상, 미사 등
- 문의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성모신심미사
- 때 · 곳 : 매주 토 10:30, 새얼센터
- 문의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042)824-6771

본 당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미사 및 도보성지순례
- 때 · 곳 : 5.29(토) 11:30 미사, 진산성지성당
- 주례 : 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
- 9시에 장태산 구름다리 아래에서 모여 진산성지까지 주교님과 함께 도보성지순례
- 도보성지순례 하실 분은 장태산에 주차, 미사 후 성지에서 장태산까지 차량운행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리조트 재개장
- 요나콘도가 모든 객실을 리모델링 후 요나리조트로 변경하여 새롭게 개장함
- 6월부터 객실 이용 가능
- 문의 : (041)934-7758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둔산동 삼천교 네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비밀, 무료상담)
- 가정문제 부부갈등, 자녀문제, 가정폭력, 가정법률 그 외 기타(심리검사)
- 상담방법 : 전화, 면접, 서신(Fax 포함)
  E-mail(domestic-vcc@hanmail.net)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 : (042)636-2033~4, Fax 636-2035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병설노인복지센터 어르신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 1,2,3,4,5등급을 받은 어르신
- 주간보호 : 인지기능, 신체기능향상 등을 위해 낮동안 어르신을 돌봐드림(08:30~17:30)
- 방문요양 :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봐드림
- 문의 : (042)825-3182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천주교 대전교구 / '치매안심병동' 운영
-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주일 · 평일 미사 및 봉성체
- 문의 : (041)950-1008

2021년 생태환경위원회 천안/아산지구 연수
- 주제 : 정의로운 에너지
- 때 : 6.5(토) 09:00~15:00
- 곳 : 천안성정동성당
- 대상 : 누구나(생태환경분과장 및 활동가 필히 참석 요망)
- 참가비 : 2만원(점심식사 제공)
- 신청마감 : 5.26(수)
- 접수 · 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 대상 :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 신청 : 수시 가능 / 검색창 : 사이버성경학교
- 문의 : (031)360-7635, 010-7470-7966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 전례초조각, 캘리그라피, 가곡/성가, 영화와말씀피정, 성경공부
- 전례초연구소 수강생모집(초 · 중 · 고급 · 강사반)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 사이버 · 신자재교육)
- 주최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회비 :만원
- 주소 : 서울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 문의 :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대구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 대상 : 7세~성인 및 실버
- 수업 : 1:1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 문의 : (053)593-1273 / 월~금

대구대교구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제곡 창작성가 공모
- 분야 : 교회 전통음악, 가톨릭 생활성가
- 자격 : 가톨릭신자라면 누구나
- 기간 : 3.19(금)~9.30(목)
- 총 상금 2,000만 원
- 자세한 요강 및 문의 : 대구대교구 홈페이지 및 문화홍보국 (053)250-3046~9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 때 : 5.20(목) 14:00
- 곳 : 목동성당 1층 대성당
- 집전 : 김재덕 신부 / 대상 : 전 신자
- 문의 : 010-2265-0668

오기선 요셉장학회 정기미사
- 때 · 곳 : 5.18(화) 15:00, 천안오룡동성당
- 미사집전 :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9894-8004, 010-8802-3860

수도회 및 피정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도회수사들과 제주성지 · 역사 ·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 자연순례피정 : 5.22~24, 5.28~30, 6.19~21, 7.23~25, 7.30~8.2
- 성지순례피정 : 6.7~10, 6.13~16, 9.6~9, 9.12~15, 9.26~29
- 접수 : (02)773-1463, (064)756-6009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성소 모임
- 때 : 매월 둘째 토 11:00
- 곳 : 대전 밀레마니센터
- 문의 : 010-3705-8184

유사종교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 문의 : 010-5812-0192
  010-5812-0193(대학생, 청년)
- E-mail : yusadaejeon@gmail.com
  교구 유사종교 대책위원회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6671-2489	세종성모내과 내분비 질환 중점진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4층(환경부 앞) T. (044)905-0606 원장 이강우 도미니꼬	이광우 치과 원장 이광우 타데오 타임월드 별관 2층 T. (042)483-7528, 489-7528	한국성지순례167 완주 6.14(월)~6.17(목) 춘천.원주교구 4일 7.19(월)~7.22(목) 대전교구 4일 www.michaeltour.co.kr 미카엘 여행사 010-8650-9690
척추 · 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 · 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이바르게 치과교정과 치과 교정과전문의 홍성규(미카엘) 브라켓없는 3D 디지털투명교정 타임월드네거리 (042)482-3601	바로세움병원 척추.관절 집중치료 서울아산병원 출신 황인석 대표원장, 김경훈(요한)원장, 강재환(필립보)원장 외 5명 협진 (042)489-8888 대전 서구 둔산남로107	맑은눈 안과 라식,라섹,노안,백내장 T. (042)476-0075 정부청사역 4번 출구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한국공간정리협회 (오마이홈) 신박한 집정리 전문 서비스 신진경 세실리아 T.1522-4123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대전베스트정형외과 척추, 관절, 외상 전문 대표원장 양준영(가롤로) 전충남의대 교수 T.(042)345-7700 유성구 봉명동 604-1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의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1년 제55차 홍보 주일 담화(2021년 5월 16일)_요약

"와서 보시오" (요한 1,46).

사람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만나 소통하기

저는 올해 담화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와서 보시오."라는 초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언론, 인터넷, 교회의 일상적 설교, 정치적 사회적 소통 등 투명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소통에 영감이 됩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복음서를 쓸 때 그가 사건 현장에 직접 있었음을 밝히고 그의 삶에 영향을 준 체험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복음서에는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나타나엘에게 필립보는 다만 "와서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직접 본 나타나엘은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작되는 방법이며,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신앙은 말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앎입니다.

뉴스 보도를 살펴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작성한 보도는, 만들어진 보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방관자가 될 뿐입니다. 언론은 누구도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박해받는 이들의 아픔과 수많은 억압과 불의를 알게 됩니다. 지금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기에 언론이 부유한 나라들의 시각으로만 보도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유용한 도구로써 뉴스가 가장 먼저 보도되는 큰 영향력을 지닌 도구입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는 것, 곧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리고, 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고 듣는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무엇도 직접 보는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직접 체험하여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일 때, 체험과 대화로 우리를 이끌어 들일 때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와서 보시오."라는 초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와서 보시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여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메일과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를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만나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감동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프란치스코

하루 10분 성모님 손잡고

엮음 성바오로딸수도회 / 바오로딸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신 마리아와 함께하면서 그분이 지니신 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된다. 피정이나 기도 모임에 가기도 힘든 코로나 시대에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하루에 10분, 그분의 망토 아래 싸여 위로와 용기를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성모님 손잡고 주님과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한다.

킴벨피부과병원 (가톨릭피부과)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042)471-7575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룡I.C 인근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율리오	이안과병원 전문분야별 6인진료 T. (042)220-5500	베타니아 성물센터 혼배 · 묵주반지, 전례복, 전례용품 월-금 09~18:00 / 토 14:00~18:00 국내외성물 T. (042)226-8980	한강 외과 치질, 대장내시경, 외과수술 김성철(대철베드로) 오룡역 2번 출구 T. (042)523-9856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042)532-7009	효안과 (전, 눈빛안과) 노안 · 백내장 · 라식 · 라섹 이효(바오로) T. (042)486-5050 둔산동 1110번지 8층 경성큰마을 사거리	대전성모안과 원장: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홈플러스 옆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광고 모집 (042)257-0190

교구장 동정

5월 17일(월)~23일(주일)

- 5월 18일(화) – 성 김대건의 해 선포식(당진시청 14:00)
- 5월 21일(금) – 사목방문(태안 15:30)
- 5월 23일(주일) – 견진(세종성요한 11:00)

교황님 알현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바티칸을 방문하셨다. 교황님과의 개인 알현 때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 희년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렸다. 희년과 관련된 한국 조폐공사의 희년 기념 메달을 전하고 솔뫼성지의 '기억과 희망'성전을 비롯한 많은 변화들에 대하여 사진을 보여 드리며 말씀을 드렸다. 특별히 우리 교구에서 실시하여 한국천주교회 전체가 실시하고 있는 백신 나눔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교황님께서는 이 운동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한국 시민들, 특별히 대전교구 공동체에 대한 축복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다.

교황청과 교황청 시성성 방문

교황청 방문 일정 중 국무성 장관인 Parolin 추기경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대전교구의 전반적인 사목에 대해 보고를 하셨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탄생 200주년 희년에 관한 부분과 백신 나눔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고 국무성 장관 추기경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대전교구의 애덕 실천에 관한 고마움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추진위원장으로서 교황청 시성성을 방문하셨다. 이 방문을 통해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에 대한 '기적 심사'에 관한 경과를 보고하셨다.

▲ 교황청 국무성 장관 Parolin 추기경님과 함께

▲ (오른쪽부터) 시성성 장관 추기경님, 교구장 주교님, 시성성 차관 대주교님, 차관보 몬시뇰님과 함께

유학 사제들과의 만남

교황청 방문 일정 중 로마에서 유학하고 있는 교구 신부님들과의 만남을 가지셨다. 함께 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시며 유학 생활의 기쁨과 어려움들을 모두 들으셨다. 이 기간 중 권영명 신부의 박사학위 심사를 함께 하셨고, 모든 신부님과 함께 교구의 학자 사제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하셨다.